

‘쟁점법안’ 처리 놓고 국회 이틀째 파행

한 “단독처리 불사...野 저지 땐 ‘질서 유지권’ 발동” 민 “국회의장 사과부터...상임위 진행 땐 실력 저지”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에 이어 쟁점법안의 속전속결 처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16일 ‘국회운영 전면 중단’으로 강경 대응하면서 임시국회가 이틀째 공전됐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운영 전면 거부와 한나라당의 상임위 강행시 실력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질서유지권 사용’을 선언하면서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대처를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오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와 관련,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사퇴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 등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회 운영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원내대표와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김진표 최고위원 등 소속의원 20여명이 ‘갑세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기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실을 향의

방문했으나 김 의장이 자리를 비워 면담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또 이날 한나라당 이한구 위원장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위원장에 대해 회의공개 원배, 합의원칙 위배, 소위위원 심의권 박탈, 권력남용, 직무유기, 청렴의무 위배를 사유로 윤리특위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3개 교섭단체 대표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지원 예산 편성에 합의했음에도 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거부해 예산안의 파행처리를 낳았다”며 “당일 11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채 잠적해 예결위원들의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국토해양위원회 심사소위,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위원회가 민주당의 불참으로 각각 무산됐다.

또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방안’에 관한 공청회’는 예정대로 열렸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 등과 관련해 민주당이 상임위 등 국회 의사일정에 불참하기로 한 가운데 1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안전위, 외교통상위 합동공청회가 민주당 의원 없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만 민주당은 전면 불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와 규제 개혁을 위한 법안의 조속 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민주당의 상임위 실력저지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 위원장들과 간사들은 계류된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늘부터 상임위를 열어서 적극 처리해달라”며 “(야당이) 물러 저지를 하면 질서유지

권을 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의통위 여야 간사 협의에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통보하고 18일 오후 2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진 의통위원장은 비준안 상정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 무소속 의원 민주 복당 재검토 丁 대표 “정기국회 후 이윤석 의원부터 논의”

호남권 무소속 의원들의 민주당 복당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당 지도부 회의에서 무소속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의 복당이 논의될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에 대한 복당 논의도 수면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빠르면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복당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세균 대표도 지난달 4일 호남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 “정기국회가 끝난 후 차차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이윤석 의원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호남지역 무소속 의원은 이 의원 외에도 강운태(광주 남), 유성업(전북 정읍) 의원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그럼에도 강, 유 의원의 복당 논의가 아직까지 수면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당 지도부의 반발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강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 대부분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유 의원의 경우 김원기 전 의원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의원의 경우도 동고동계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이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어 우선적으로 복당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내의 전반적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선 복당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전념할 뿐 복당 등에 대한 결정은 민주당 지도부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35명 ‘남해안 발전’ 정책토론회

19일 경남 하동서 1박2일

여야 국회의원 35인으로 구성된 국회 ‘남해안시대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공동대표 김성근, 정의화, 이주영)은 오는 19일 경남 하동군 하동문화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2012년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접지역 연계개발방안을 논의하는 ‘남해안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록 전남대 사회과학대학장과 이창희 경남발전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게 되며 토론자로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김춘선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조정실장, 함민회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조유행 하동군수, 한창진 전남시민연대 대표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에 앞서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경남 남해·하동)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회식에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기조연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토균형개발 구상을 발표하며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김태호 경상남도지사가 각각 참석, 축사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

토론회에 앞서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경남 남해·하동)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회식에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기조연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토균형개발 구상을 발표하며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김태호 경상남도지사가 각각 참석, 축사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

‘예산 조기집행 공무원 면책안’ 의결

정부는 16일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한 공무원 면책 방안을 채택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공무원이 예산 조기집행 업무를 능동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공무원 면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면책안은 예산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 위반과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명백한 개인 비리가 없는 경우 과감히 불문하는 ‘적극 행정 면책제’를 우선 적용하도록 감사원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피감사자에게 면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감사원에 협조를 요청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적극적인 창의적인 업무처리로 가치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무사안일’ 행태에 대해서 엄단 조치하기로 했다.

신 차관은 “감사원이 면책안을 마련했고, 정부도 각 부처 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취지”라며 “적극 행정 면책제 우선 적용 등 정부의 요청 사안에 대해 감사원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연말 ‘경제 살리기’ 속도전

“모든 사업 신속·효과적 집행...경제 난국 돌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경제 살리기’ 행보에 적극 나서며 국정 장악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각종 경제관련 회의의 직접 주재하며 재정의 조기집행을 잇따라 촉구하는 등 연말 일정을 거의 경제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것.

이 대통령은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 당일치기로 참석하고 돌아온 뒤 바로 다음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확대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연말 강행군에 나서고 있다.

15일 하루에만 박희태 대표와의 당청회동,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차회의

주재, 수출업계 대표 오찬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고, 16일에는 ‘2009년 경제운용방향 보고대회’를 주재해 새해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지난 14일 긴급 확대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착수할 사업은 당장 시행토록 하라”고 특별 지시했고, 15일 국가균형위 회의에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사업의 착수를 주문하면서 “이제 전국이 모든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업무 보고도 결국 경제살리기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새해 업무보고를 연말에 앞당겨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대미문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되도록 빠른 시일내 경기활성화 효과를 거두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연내에 경영효율화 10% 달성을 골자로 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확정지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는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특히, 앞으로 경제상황이 풀리지 않을 경우, 자칫 ‘최고기 파동’ 때와 같은 국정 혼란이 재연되면서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임동욱 기자 tuim@

문의 즉시 직접 해주는 상담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2009년 12월 17일

문의처: 062) 512-1144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맛&멋

2009년 12월 17일

<p>홈페이지</p> <p>기업,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p>	<p>영상제작</p> <p>기업,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영상물을 제작합니다.</p>	<p>광고대행</p> <p>기업,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광고를 집행합니다.</p>	<p>홍보대행</p> <p>기업,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홍보를 집행합니다.</p>
--	---	--	--